

머무름, 4주: “존재함과 행함”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머물다Dwell"이라는 시리즈에 속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리즈네요! 여러분, 이 시리즈를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재능 있는 교사들과 설교자들을 보내 이 공동체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보 목사님, 제이미 목사님, 알렉스 목사님으로부터 이사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의 이름이 "머물다Dwell"인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경전 이야기의 전부는 거하는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하며, 우리가 서로 함께 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와 창조 기록을 되돌아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서로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보시고 “좋다”라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그것은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창조한 자니라. 귀하의 신원, 귀하의 소속 및 귀하의 목적은 필요한 곳에 모두 적합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고, 집에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전과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하는 일 사이에는 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정의됩니까? 나는 왜 나답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인간인가?

전통적으로 당신은 목사가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아마 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동에 너무 집착하는 문화에서 저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지 완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더 미묘한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나는 인간인가”라는 질문을 들을 때 생각합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 포인트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을 갖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우리는 순전히 우리를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며, 정체성과 소속의 장소에서 우리는 위대한 신성한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하는 일 뒤에 숨은 '이유'를 바꾸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_____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_____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보는 것, 창조 이야기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현실이며, 동전의 양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수메르인이나 바빌로니아인과 같은 다른 고대 문화의 다른 창조 신화를 살펴보면 인간은 폭력에서 태어나 신을 섬기기 위해 생산할 수 있는 것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한 기쁨과 그렇게 하려는 열망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은 창조물을 함께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동반자 관계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이 일을 명령하시는 방식을 어지럽혔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면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이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Imago Dei", 즉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의, 학대, 악에는 우리가 뼈속 깊이 알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갖고 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 **CS 루이스**

우리가 왜곡한 세상, 우리 주변에서 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세상은 완벽해요. 그리고 경전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계시며, 재건하고 계시고, 창조물을 원래 의도된 대로 다시 정리하고 계시다는 이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 함께 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성서 학자 산드라 리치처(Sandra Rictch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자리에 거합니다.

-산드라 리치터, 에덴 서사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서로 함께 거하는 처소를 찾을 때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에 완전한 평화와 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는 일은 다시 좋은 방식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계획 A가 틀렸을 때 예수님은 계획 B가 아니었습니다. 계획 A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분은 이 타락한 세상을 원래 목적이었던 동산의 상태로 되돌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시작한 선한 일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선지자가 그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포로 생활을 마친 후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포로 이후의 유대인들은 우리와 매우 다르지만, 다른 면에서 그들이 씨름해야 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이 구절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문화, 종교적 관습, 가정,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분열되었고, 그들은 포로 생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충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시, 성벽, 공동체, 종교적 관습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약간의 정체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땅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지 수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 하며, 망명 생활에서 배운 습관을 깨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압제자들로부터 어떻게 생활하고 예배하도록 배웠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고 예배하도록 요구하셨는지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의 여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로 다른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모두 바벨론의 또 다른 버전일 뿐입니다. 우리 나라가 아무리 자비롭거나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인간의 손에 의해 운영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대해 의도하신 것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된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문화에 의해 더 많이 제자화되게 됩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두 번째 총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기보다 더 바벨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내가 쌓아온 삶 위에 뿌리는 요정의 먼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케시기가 지난 주에 노래한 것처럼, 기독교적인 일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이 우리 삶과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드러야 합니다. 나의 헌신, 나의 애정, 나의 예배는 무엇보다도 온전히 그분께 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따르기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내 마음과 정신 속에 항상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옆에 있는 몇몇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야웨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가 많이 언급하게 될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번영을 위해 싸우고, 조국의 번영을 추구하고, 조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조국의 스포츠팀을 응원할 수 있지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내 집이 아닙니다. 설마.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썼듯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 시민입니다.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럼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언어 중 일부를 풀어보겠습니다. 빛, 멍에,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쎄, Alex 목사, Jamie 목사, Bo 목사가 지난 몇 주 동안 짐을 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를 둘러싼 긴장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토라를 열었고, 절기를 다시 깨우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웨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상 숭배와 언약 파기가 좌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웨를 숭배하는 특 권을 원하지만 여전히 정복자들의 문화적 영향력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 초에 구별된 이유를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고 거룩해지도록 선택되지 않았습 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땅의 다른 낮은 신들보다 선호를 갖고 그들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실 수 있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방에게 축복이 되도록 구별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 거친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단지 금식에 관한 것이 아니며, 단지 좋은 종교적 관습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 게 먹이를 주고 있나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계십니까?

BE 로 부르신 것과 행하도록 부르신 것 사이에는 이러한 단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라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예쁘네요. 보세요, 마치 케루빔 같군요. 보세요, 우리는 쇼 빵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을 뿌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고 선지자는 다소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 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는 일을 지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매 없는 믿음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 후,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네 의로움이 네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와 영광이 너를 호위하시리라 이사야 58:8

당신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일을 시작하면 그분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이 사 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말입니다 . 그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오용함 -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의제에 두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는 한... 그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녀의 해로운 행동을 거부하더라도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보복사(Bo)가 “죽은 종교”라고 부르는 것에 맞서고 있습니다. 알렉스 목사는 지난 주 야고보의 편지를 언급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우리는 약 5000년을 빨리 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정복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제국이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종교 엘리트들은 아직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부와 안락을 누리고 있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은 세금과 로마법으로 인해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SOTM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그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십니다. 겉으로는 잘 조화되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와 행위의 동일한 긴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상 수훈에서 이사야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우 유사한 언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마태복음 7:21**

이사야의 말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기도만 많이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알았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줘. 그러면 천국 열차를 탈 거야. 어떤 단체에 기부해야 하나요? 마크 목사님은 언제 또 다른 우물을 파시나요?”

그러나 그는 그 말을 한 직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되나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에게서 떠나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 **마태복음 7:22-23**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당신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를 거부할 건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인연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관해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내적 변화를 쫓고 계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부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진정한 협력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와의 연결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의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삶의 완전히 통합된 측면입니다. 그리고 죽은 종교는 그러한 것 중 하나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깊이 형성된 삶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통일됩니다.

죽은 종교 (나는 이 글머리 기호가 한 번에 하나씩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거 신앙" 목록과 나란히 있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에 대해 안다**
- **사랑을 위해 일한다**
- **불안해하는**

거주하는 신앙

- **하나님을 안다**
- **사랑에서 나온 작품**
- **안전한**

죽은 종교

- **하나님에 대해 안다**

죽은 종교도 성경을 외울 수 있습니다. 죽은 종교는 신학과 역사에 정통할 수 있습니다. 죽은 종교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 누구와도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종교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압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행전 4:13

어떤 종류의 우정이든 결혼이든, 네 , 파트너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 지 등.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아는 것 이상으로,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기도하고 고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까? 아니면 우리의 종교가 그분과의 관계를 대신하게 되었습니까?

거주하는 신앙

- 하나님을 안다

거하는 믿음은 은밀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의도적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했습니다.

거하는 신앙은 진리는 이해해야 할 개념이 아니라 알아야 할 사람이라는 현실을 포용합니다.

죽은 종교 - 사랑을 위해 일함

수고하고 바퀴를 돌리며 갈기갈이를 치며,

-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십시오.
- 우리에게 주말에만 일하는 문화가 있어요

거주하는 신앙

사랑으로 일함 - 안식일 - 정원 -

죽은 종교

불안 - 죽은 믿음은 불안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주, 고립의 반대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고립은 두려움과 수치심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집은 안전과 평화와 희망의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본 적 있나요?

요한은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가르치셨던 이 가르침을 회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고 제자들은 가지라는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나의 삶은 선함을 낳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누구인지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거나 행하는 것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일 때 이 두 개념은 동일합니다.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혼합된 은유가 많이 있지만 이사야는 빛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분께서 이 메시아적 인물(현재 우리가 예수라고 알고 있는 인물)을 빛으로 묘사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포도나무를 볼 때, 그 가지를 볼 때, 나는 포도나무의 일부인 많은 가지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많이 있지만 모두 포도나무의 일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할 때, 우리는 그분이 세상에 비추시는 빛이 됩니다.

이 특정 섹션에서는 빛과 정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 빛은 이사야서와 경전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이사야 9:2)
 -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온 인류의 빛이니라. 5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5)

빛은 존재와 행위의 통합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빛은 그 자체이며, 그것이 하는 일을 합니다. 빛이면 빛나고, 빛나면 빛이다. 둘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학계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는 빛이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는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하는 일은 통합되고 전체적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합될 때 빛이 비치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주며 고난

당하는 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을 것이요

이사야 58:10

주님을 향한 열정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당신의 빛이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거나, 위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원 사업은 어떻습니까?

- 정원은 우리가 갈 곳입니다. 정원, 에덴.
 - 그런데 11절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거주 - 성막,

-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 성막은 동산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에덴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곳을 상징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우리의 세상을 다시 에덴과 같이 만드실 때까지 긴장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원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릇이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갑니다.
- 때때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질문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 하지만 나는 천국에 갈 만큼 충분히 일했는가? 나는 에덴을 얻을 만큼 충분히 일했는가? 그건 죽은 종교입니다.
 - 나는 지상낙원을 구현하기에 충분한 일을 하였는가?
 - 나는 아버지가 나를 비비실 정도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볼 때, 나는 너무도 발맞추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창조된 내가 되고, 창조된 일을 살아 있는 동안 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이 곳을 하나님의 곳처럼 대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분의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은 종교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은 종교는 행하지 않고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모르고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죽은 종교는 포도나무에 자리를 잡기 위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잘려진 가지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어 스스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줄은 알지만 포도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형증후군)

- 종교의 영은 어디서 오는가?
-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용서와 승인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의 사랑을 위해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나 자신을 속였을 때 옵니다.
- 두 아들의 비유
-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제공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 가장 비열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항상 가장 많이 버림받고 학대받는 사람입니다.
- 우리가 죽은 종교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성되십시오 . (아들을 보며)

- 아버지와 함께 속한 곳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
- 나는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과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 내가 나의 문화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나는 나의 문화처럼 보이고 행동할 것입니다.
 -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면 사람들은 머지않아 내 얼굴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변화되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받은 것과 나를 변화시킨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 이사야는 우리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동산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리하면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 나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이해했을 때, 나는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고, 부족함이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 그들이 나를 저주할 때 그들을 축복하여라.
 - 그들이 나를 찾지 않을 때에도 그들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유배 중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정원이며 생명과 사랑의 원천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